

파리 OECD에서 국제조세 新역사의 초석을 놓다

- 이름 : 이연우
- 근무기구 및 부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본부
- 직위/직급 : 초급 조세 자문가
- 지원경로 : JPO
- 근무기간 : 2022.02. - 현재

신호탄 - 직선 트랙을 벗어나 곡선으로 뛸 결심

20대의 나는 정해진 트랙 안에서 일탈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였다. 20대 초중반에는 고시 공부를 하고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법조인의 길을, 20대 중후반에는 한국 대형로펌 조세팀에서 조세 변호사로서의 길을 쉽 없이 달렸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고, 묵묵하고 꾸준하게 곧은 길을 걷는 것이 적성에도 맞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스위브(Swerve)>라는 책을 보고, 내 인생의 레인에서 언젠가 남들과 다르게 곡선으로 뛸 결심을 한 적이 있었다. 스위브는 럭비, 하키 등 스포츠에서 곡선으로 뛰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나의 지평을 넓히려면 인생의 길에서 스위브 전략을 써서 한 번쯤은 달리던 트랙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맞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곡선으로 뛸 시점이라는 신호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울렸다. OECD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매우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세법 실무를 하면서 장밋빛 로망을 갖게 된 국제기구였는데,¹⁾ 함께 업무했던 지인의 소개로 OECD 조세정책본부의 JPO 선발 공고를 보게 되었다. 업무 기술서 역시 국제조세 분야의 최첨단 프로젝트이자, 평소 학구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던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문제 해결에 관한 BEPS²⁾ 프로젝트였기에, 우연히 찾아온 이 기회를 꼭 붙들

1) 다국적 기업이 국제거래시 어느 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 것이 타당한가를 포함한 각종 국제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OECD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해석하는 기관이다. 예컨대 OECD의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 이전가격 지침 등은 관련 분야의 조세소송 등 실무에서 매우 자주 인용된다.

2) BEPS는 세원잠식과 이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청한다. 현재 OECD/G20 주도하에 140여 개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고 싶은 간절함이 용광로처럼 불타올랐다.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국제조세 전문가로서 OECD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너무 컸기에 지원 과정에 엄청난 열과 성을 다했다. 어린 시절 길지 않은 해외 체류 외에는 토종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영어 커버레터나 이력서, 영어 면접 준비가 모두 처음이었다. 대형로펌 근무 경력 덕분에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은 강점이 있었지만, 해외 거주 경험이 많은 지원자들에 비해 영어가 부족할까봐 걱정이었고 노력을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국제기구 지원 절차도 생소했기에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UN 경력개발 설명회에 참여했고 전임 JPO에게 링크드인 메시지로 질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커버레터는 나의 경험들 중 업무 기술서에 맞추어 디지털 경제 및 조세정책 관련 내용을 살려 준비했는데, 수십 번 퇴고를 거듭할수록 커버레터의 밀도가 높아졌고 짧은 편지에도 나의 인생을 오밀조밀 짜임새 있게 담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면접은 (1)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OECD 조세정책본부에서 발간한 BEPS 프로젝트 보고서들을 공부하며 내 나름의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변을 연습해보았다. (2) 조직역량 측면에서는 OECD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y)³⁾에 따라 협업 능력이나 전략적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담을 여러 개 미리 생각해두고 이를 어떤 질문이 나와도 변용할 수 있게 비슷한 대답 구조(상황-나의행동-결과-배운점)로 준비한 후 반복해서 연습했다. 실제 면접에서는 면접 45분 내내 기술적인 내용을 계속 물어보았고,⁴⁾ 마지막에 갈등 해결 사례를 간단히 물었다.

필기시험은 면접 준비 내용을 에세이 또는 브리핑 방식으로 써보면서 준비했고, 정해진 시간에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보내주면 1시간 30분 동안 답변을 작성

창립하는 작업을 BEPS 프로젝트 중 소위 두 기둥(Two-Pillar)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이는 필라1과 필라2 프로젝트로 나뉘는데, 필라1은 금액A와 금액B 프로젝트로, 필라2는 글로벌최저한세와 조약기반 과세노출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 프로젝트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3) https://www.oecd.org/careers/competency_framework_en.pdf

4) 예컨대 (1) 조세번호사로 근무하면서 다루었던 국제조세의 조약 관련 쟁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2) 현재 OECD가 진행하고 있는 필라1 금액A가 실제로 시행되면 기존 OECD 모델조세조약의 어느 조항에 어떤 개정이 필요하겠는지, (3) BEPS방지 관련 조세조약 관련 조치의 적용을 위한 다자협약(BEPS MLI,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에서 혜택배제조항(LOB, Limitation of Benefits)과 주된 목적 요건(Principal Purpose Test)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 어떤 질문에서는 내 나름 대답을 하고 나서 면접관이 힌트를 주려는 듯한 후속 질문을 해서 그 취지를 헤아려 대답하고자 노력했고, 어떤 질문은 내가 준비하던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었지만 다행히 비슷한 시기에 들던 IBFD 온라인 국제조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어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해서 회신하는 방식이었다. 문제가 총 3개였는데,⁵⁾ 마음껏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었지만 시험 시간이 빠듯해서 일필휘지로 쓰고 반절 정도 퇴고하다가 회신했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준비과정 자체로도 큰 공부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행복하게도 2021년 11월 프랑스에서 임명 서신과 함께 합격 소식이 날아왔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참말이구나 싶었다. 그 후 비자 신청 등 포함하여 각종 행정절차들을 챙기고, 부랴부랴 프랑스어 기초를 속성으로 익히고, 외교부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석하고, 드디어 파리행 편도 비행기표를 끊었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A Whole New World ♪

2022년 2월, 인천국제공항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횡한 상황이었다. 간혹 보이는 탑승객들은 나처럼 이민 가방을 짊어진 사람들뿐이었다. 텅 빈 파리행 여객기에서 창밖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노라니, 이 비행기를 타면 나의 인생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파리 샤를드골공항에 도착하자 불어 초보인 내게 환영합니다(Bienvenue), 파리는 당신을 사랑해요(Paris vous aime)라는 문구들이 보였는데, 나도 내게 불쑥 다가온 새로운 인생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파리와 사랑에 빠지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비행기는 나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고 그 세계와 사랑에 빠지게 해준 마법의 양탄자였다.

OECD 조세정책본부에는 총 5개의 부서가 있는데⁶⁾ 나는 조세조약/이전가격/금융거래 부서의 조세조약 팀에 속했다. 조세조약 팀은 보조직원을 제외하면 영국

5) 가장 비중이 컸던 (1)번 문제는 BEPS 다자협약(MLI)을 주고 여기서 2017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변형하는 조항을 찾아 개발도상국에게 설명하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어떤 조항을 도입하면 좋을지 설명하라는 것이었고, (2)번 문제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두 기둥 대책(Two-Pillar Solution)에 관한 2021년 10월 포괄적 이행체계의 합의 내용을 주고 필라1과 관련한 조세조약의 미래를 조세조약 팀장을 위해 브리핑하라는 문제였으며, (3)번 문제는 팀워크의 정의를 내려보라는 것이었다.

6) OECD 조세정책본부에서 사무국장실(Director's Office)를 제외한 5개 부서들은 회원국/비회원국 소속 조세정책 관련 정부관료들로 구성된 여러 종류의 작업반(Working Party, WP) 회의체(별첨 그림)에 따라 업무가 분장된다. ①조세조약/이전가격/금융거래 부서(TTP, Tax Treaty, Transfer Pricing and Financial Transactions Division)의 조세조약 팀은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개별 조약협상 관련 제1작업반(WP1)을, 이전가격 팀은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관련 제6작업반(WP6)을 담당하며, ②국제협력/조세행정 부서(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ax Administration Division)에서 조세경쟁제한 관련 제11작업반(WP11)과 상호합의 절차 등 과세관청 간 분쟁해결 포럼(FTA/MAP Forum) 및 조세범죄를 다룬다. ③조세정책 통계 부서(TPS, Tax Policy and Statistics Division)는 경제효과분석을 하는 제2작업반(WP2)과 소비세 관련 제9작업반(WP9)을 다루고, ④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F,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Division)은 정보교환과 관련한 제10작업반(WP10)을 다루며, ⑤국제관계/개발 부서(GRD, Global Relations and Development Division)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조세행정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많은 사무국 직원들이 각 국가의 국제청이나 재정부처에서 근무하던 배경을 지니고 있었고, 일부가 Big4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인 3명, 캐나다인 3명, 벨기에인 1명, 미국인 1명, 아일랜드인 1명, 일본인 2명 (일본 정부 파견 공무원)이었다. 내가 관여할 BEPS 프로젝트는 지구 내에서도 최우선순위를 지닌 중요 프로젝트였기에, 조세조약 팀 외에 이전가격 팀과 국제협력/조세행정 부서도 널리 관여하고 있었다.⁷⁾ 필라1 금액A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세무 기술 분야만 10개가 넘었고, 관여하는 사무국 인원도 40여 명 정도 되었으며, 1~2주 단위로 개최되는 기술작업반 화상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도 200여 명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금액A 프로젝트를 따로 조율 관리하는 팀(프랑스인 1명, 네덜란드인 1명)이 조세조약 팀과 이전가격 팀의 사이에 별도로 있었다. 나는 조세조약 팀이면서 금액A 프로젝트 관리팀에도 속하였고, 이전가격 팀 및 국제협력/조세행정 부서, 조세정책 통계 부서와도 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지에 단시일에 부서 내 마당밭이 되었다.

외교적 감수성과 기술적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한국 대형로펌에서 일하면서 고강도의 업무 및 예측불가능한 위기 대응에 익숙했지만, OECD 조세정책본부 역시 바쁘게 돌아가는 프로젝트 특성상 때때로 긴장감이 높았다. 예컨대 첫 출근 날 오후 12:30부터 과세노출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에 관한 제1작업반 가상회의가 있었는데, 첫날이었지만 다른 팀원들과 똑같이 점심을 샌드위치로 대강 때우고 팀장님 옆에 앉아서 스크린 데뷰를 하였다.

조세조약 팀이 전담하는 제1작업반 국제회의 외에, 디지털 경제에 관한 기술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 회의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이는 전 지구에서 동 시간대에 기술 실무자들이 200여 명 참여하는 가상회의로 1~2주마다 주2~3일 중앙유럽시간 12:30-16:30⁸⁾에 진행되었다(2022년 7월 진행보고서 발간 시까지 반년간 50여 회).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인 금액A 세

7) 국제협력/조세행정 부서에서는 주로 필라2(WP11)와 필라1 금액A 중 조세확실성과 집행 분야(FTAMAP Forum)를 담당하였고, 우리 부서의 조세조약 팀/이전가격 팀 중심으로 필라1 금액A의 실질적인 조세질서를 짓는 역할을 하였으며(TFDE, Task Force for Digital Economy), 조세조약 팀에서 필라2 중 조세조약을 기반으로 한 과세노출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을(WP1), 이전가격 팀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해 이전가격 규칙을 단순화하는 필라1 금액B를 담당하였다(WP6).

8) 중앙유럽시간 오후 12:30은 써머타임이 아닌 때를 기준으로 워싱턴DC 등 미국동부 시각으로는 새벽 6:30,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시각으로는 저녁 8:30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구 모든 지역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맞춘 시간이다. 전세계 국제조세 전문가인 정부관료들이 밤낮으로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부 분야별로 모델법안/다자협약 초안과 해설을 회원국들이 기술적으로 논의하였다. 회의를 한번 할 때마다 안건 준비, 공동의장들 브리핑 준비, 모델법안/다자협약 초안과 해설을 담은 회의문서 준비, 사무국 직원이 발표할 슬라이드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었고, 회의를 한 후에는 상당한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국가의 입장을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논의하였다. 공식적인 기술작업반 회의 외에 따로 이슈를 제기하는 국가들과는 양자 회의를 했다. 처음에는 국제회의절차나 금액A의 세부 내용들이 방대하고 버거웠는데,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모든 회의를 고도로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내가 맡은 분야의 내용 위주로 효율성이 생겼고, 금액A의 세부 내용들도 반복해서 모델법안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일상처럼 진행하던 기술작업반의 가상 국제회의 외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감에 따라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는 대면 국제회의도 수회 열렸다. 2022년 5월과 6월, 9월과 11월에 총 4차례 재정위원회 이사국 및 BEPS 관련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고, 2022년 10월에는 140여 개국 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BEPS 관련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총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대면 국제회의에서는 한국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에서 출장오신 분들을 포함, 여러 나라의 의사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필라1 금액A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 하에서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과세권을 가져갈지에 관한 싸움이기에 매우 치열하고 복잡한 다자협상이었는데, 대면 국제회의에서는 커피휴식,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서 대표들이 비공식적으로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입장을 완화하는 것이 더 수월했고, 가상공간에서 절대 타결되지 않을 것 같던 쟁점들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짜릿했다.

2022년 6월, 9월, 11월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회의의 주요 안건은 시장소재국이 이미 다국적 기업의 재배분 대상 잔여 이익에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및 원천징수세금을 어떻게 새로운 질서 체계에 고려할 것인지였다. 이는 내가 주로 담당했던 분야였는데,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산식을

개발해서 모델법안/다자협약에 포함해야 했기 때문에 초안 작업 외에 엑셀 작업도 많았다. 고생스러웠지만 함께 일하는 사무국 내부 팀원들이 훌륭해 많이 배웠고, 각국 대표들이 우리의 작업을 토대로 서로 다른 입장을 타협하며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뿌듯했다.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만드는 데에는 기존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뿐 아니라, 중립적인 국제공무원으로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나라들을 중재하고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명분있게 접근할지에 관한 외교적인 고민도 필요했다. OECD 사무국 내 리더십(국장, 부서장 등)과 내부회의시 외교적 접근법과 대화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덕분에 사적 영역에서 일할 때는 무뎠던 국제정치/외교적 감수성도 키울 수 있었다.

OECD에서 무수한 국제회의를 참석하며, 그동안 미처 몰랐던 드넓은 세계를 만끽하고 국제정치와 외교적 역학관계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국제조세 분야의 최첨단에서 내로라하는 전세계 조세정책 결정 권한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초석을 놓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근무하는 동안 2022년 7월과 10월에 2개의 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간하였는데, 내가 쓴 구절을 Tax Notes International과 같은 유수의 국제조세전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며 논의가 확대재생산되는 모습들을 보니, 마치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된 기분이었다.

따스한 사람들과 도전은 계속된다, 움직이는 축제처럼

파리 OECD에서의 삶은 함께 일하는 따스한 사람들 덕분에 더욱 행복했다. 2022년 4월에는 조세조약 팀원 중 한 명의 은퇴를 기념하여 파리 라빌레트(La Villette) 운하에서 함께 보트를 타며 와인을 즐기기도 했고, 2022년 6월 OECD 조세정책본부 여름 파티나 2022년 10월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 후 각테일파티에서는 조세정책본부 사무국장, 부국장까지도 다 같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모두 하나가 되기도 했다. 문화적 배경이 어떠하든 모두가 한 인간이고, 서로 배려하고 상부상조하며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무엇보다 OECD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환경이기에, 한국인으로서의 자아를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었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금액A에 관한 기술교육세션을 진행하면서는 우리나라의 선진성을 체감하다가도, G7 국가들 간 친밀한 외교관계를 엿보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기도 하였다. 언어장벽이나 문화장벽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나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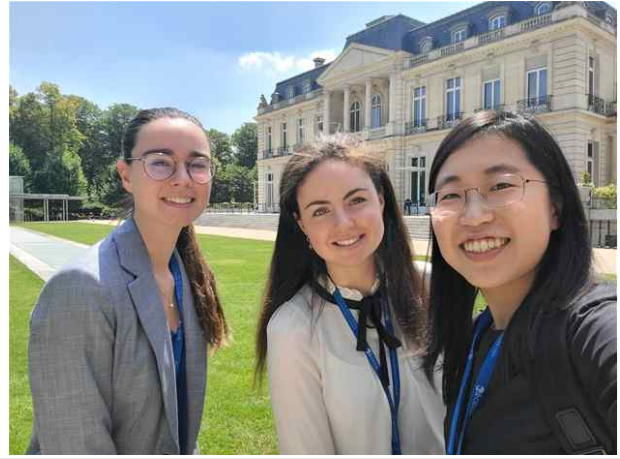
헤밍웨이는 젊은 시절 한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는 행운이 따라 준다면,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처럼 평생 곁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파리 OECD에서의 경험은 앞으로도 나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든 항상 값진 자산으로 나와 함께 할 것 같다.

[별첨 사진]

2022년 10월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총회



2022년 6월 Steering Group 회의 후 OECD 라뮤엣 샤토(Château de la Muette) 앞에서



2022년 6월 OECD 조세정책본부 여름파티에서 조세조약 팀원들과 함께



2022년 6월 OECD 조세조약 팀원이 초대 한 홈파티에서 팀원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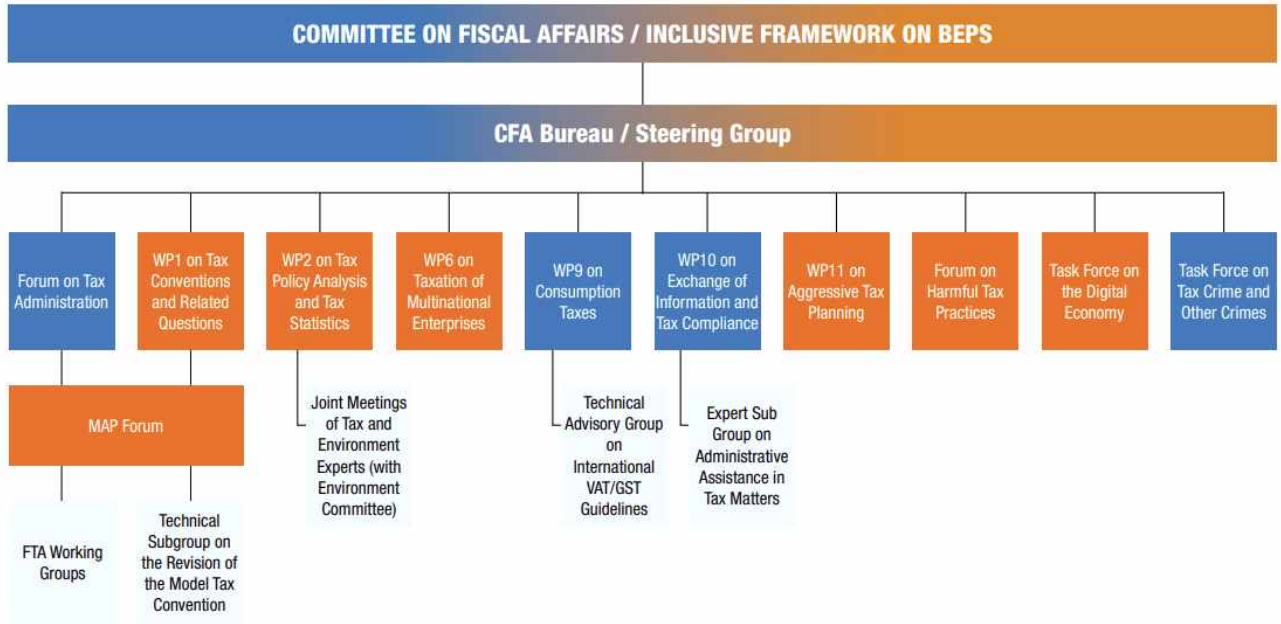
2022년 9월 Steering Group 회의 후 OECD 라뮤엣 샤토 내 회의장 앞 국기대에서



2022년 11월 OECD 브로뉴 사무실에서 조세 조약/이전가격/금융거래 부서 내부 회의 모습



[별첨 그림] OECD 재정위원회와 BEPS 프로젝트 포괄적 이행체계 회의체



(OECD 조세정책본부 브로셔⁹⁾ 발췌)

9) <https://www.oecd.org/tax/centre-for-tax-policy-and-administration-brochure.pdf>